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곽성호	학번	
이메일	Ksh6553@naver.com	휴대전화	010-7331-6553

대학원명	MSU/ Finance	(국가) 미국
기 간	2018.1. 1 ~ 2018.12.27	[귀국일2018년 12월28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 월 20일

신 청 인 : 곽 성 호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 관련 사항)

1855 년 미국 최초의 농과대학으로 설립된 미시간 주립대학교는 미국 미시간 주 이스트랜싱의 레드시더 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최고 명문 공립대학교들로 구성된 미국의 퍼블릭 아이비 대학교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대학이다.

학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재학생 수는 5 만여명에 달하며, 1 만 6 천여명의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9 번째로 큰 대학이다. 전체 학생 가운데 여학생이 51.5%를 차지한다. 미시간 주를 비롯해 미국 전역과 전 세계 130 여 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학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인도, 중국, 캐나다 출신의 학생 등 해외 유학생 수는 7,660 명에 달한다. 또, 독자적인 화력 발전소나, 경찰서, 박물관, 미술관, 천문학관, 대극장, 야외극장 등이 있어 교육 시설도 충실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캠퍼스 면적은 21km² 이며, 이 가운데 개발된 캠퍼스 면적이 약 8km² 이다. 이곳에는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 각종 체육시설을 포함해 550 여개 동의 건물이 있다. 그밖에 미시간 주 곳곳에 총면적이 80km² 에 달하는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뉴스&월드리포트>가 발표한 전미 종합대학순위에서 76 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영국의 QS(Quacquarelli Symonds)가 산정한 세계대학순위에서 170 위에 이름을 올렸다. 17 명의 로즈장학생과 19 명의 마샬장학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출신의 유명인사로 미국인 기업가 톰 고레스(Tom Gores), 미국 출신의 기업인이자 자선사업가 엘리 브로드(Eli Broad), 풀리처상 수상 작가 리처드 포드(Richard Ford), 농구선수 출신으로 현재 LA 레이커스 부사장인 매직 존슨(Magic Johnson)이 있다. 현재 수많은 졸업생이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후는 대체로 대륙성이며, 뚜렷한 계절을 가지고 있다. 봄은 야간 추운편이지만 대체적으로 온화하며, 길고 추운 겨울에 비해 여름은 아주 따뜻하여 여행을 하기에 좋은 편이다. 가을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하며, 겨울은 매우 춥고 길며 눈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다. 특히 겨울 동안은 대부분 눈이 바닥에 쌓여 있을 정도로 상당한 눈이 온다.

생활여건으로서, 미시간 주립대가 위치한 이스트랜싱은 매우 큰 대학가로, 60.2%의 인구가 15 세에서 24 세까지 분포해 있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1950~ 1960 년대까지 한나 총장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숙 건물을 세웠고 학교의 약 16,000 명의 학생들이 23 군데의 기숙사에 살고 있다. 이 중 하나는 대학원생을 위한 기숙사, 세 군데는 아파트 마을, 나머지는 일반학생의 기숙사이다. 각 기숙 건물은 저만의 관리 구역이 있다. 캠퍼스 안에 이렇게 큰 크기의 기숙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8 퍼센트의 학생들은 캠퍼스 밖에서 렌트를 하여 거주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다 빌리지"(Cedar Village)이다. 그리고 매년 4 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통적인 시다 축제(Cedar Fest)가 열리기도 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미시간 주립대. 엘리 브로드 경영대학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한국과는 달리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파이낸스 관련 이론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 모든 교수들은 충분한 경험과 그들만의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었고 가급적 한국 학생들의 영어 소통 문제를 감안하여 수업이나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 주는 편이었다. 특히 첫 수업시간에 강의 요강을 설명하는 실러버스를 제공하여 수업의 내용 및 진행방법, 평가방법을 알려 주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수업은 개인 과제나 그룹 과제가 있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매 수업마다 토의와 협업을 요하는 그룹프레젠테이션이 있어 학생들의 발표능력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원어민 학생들에 비해 부족한 한국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의 영어 수업이 배정되어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한국 학생들이 현지 대학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국인 교수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수강신청의 경우 한국인 교수가 각 파인네스 과목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원하는 과목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강 신청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었다. 또한 파인네스 관련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그간 한국 학생들을 관리해오면서 습득한 많은 노하우나 정보를 상담을 통하여 제공, 금융관련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학생들도 큰 문제 없이 수업을 따라 갈 수 있었고 나름대로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비 금융권 학생들은 오랜 금융관련 직장에서 근무한 학생들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금융관련내용을 영어로 설명하는 관계로 이들 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업을 따라 갈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MSU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은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파이낸스 관련 서적을 읽어 보는 것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학생들의 숙소는 각 취향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기숙사나 지역 렌트 아파트가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 숙소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기숙사의 경우는 학생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기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었고, 학교와 가까운 이점이 있어 몇몇 학생들은 기숙사를 선택하기도 했다.

또한 가족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많은 임대아파트 물량이 충분히 나와 있어 큰 어려움 없이 렌트 할 수 있는 편이었다.

음식의 경우 인근에 한국 음식 재료나 한국상품을 파는 한인 상점이 있어 원할 경우 구입 할 수 있어 음식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현지가 미국이다 보니 한국만큼 충분히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없다는 단점은 있었으나 나름대로 적응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결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가급적 계약 체결 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미연에 발생 할 불상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나의 경우 봄학기에 한국인 학생 관리 교수님이 권유하는 3과목보다 1과목 많은 4과목을 수강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 여름학기, 가을학기에 적은 수의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어 여유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여름의 경우 학기가 6월말경에 종료되는 관계로 가을 학기 시작 전까지 2개월 여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어, 미국 서부지역인 라스베가스, 자이언 케년, 그랜드 케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조슈아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가족과 같이 여행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미리 준비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 서부지역의 유명한 곳을 여행한 것은 미국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큰 자산이었으며 향후 내생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 2년차로서 미국 MSU에서의 유학생생활은 모든 것이 생소하였지만, 봄학기의 어려움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학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학생을 관리하는 교수님의 대처 능력이나 조언은 큰 도움이 되었다.

유학으로 인해 영어 실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학점도 무난히 이수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특히 미국인 친구들을과의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향후 이들과의 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발급의 경우 해외건가보험을 가입한 에이전시에서 대행해 주어 지정된 비자 인터뷰일에 가족과 같이 인터뷰를 받아 어려움이 없었으며, 특히 미국 입국 시에는 여권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I20도 여권 못지 않게 중요하여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2년차 GMP 과정의 유학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인생에 있어 두번다시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관계로 가급적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학업성취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름방학을 통한 가족여행도 큰 추억이 되는 관계로 장기여행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업 중 틈틈히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지에서의 생활로 인해 영어를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영어실력도 향상시키며 2년차의 유학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혜련	학번	
이메일	Heigirl201@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가) USA
기 간	2018.1.1~2018.12.31	[귀국일:2018년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28일

신 청 인 : 이 혜 련 (인)

○(기후) 미시간주는 캐나다 국경과 5대호에 인접하여 겨울에 춥고 여름에 선선함. 겨울에는 통상 영하 10도 내외 기온이며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며, 겨울이 길어 4월까지의 겨울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음. 여름은 낮에는 30도를 오르내리지만 아침저녁으로는 20도 아래로 떨어져 선선한 편임

○(주민) 학생위주의 학교도시라 그런지 유학생에게 상당히 호의적이고 친절
- 과다한 친절이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이나 문제 발생시는 달라진다고 함

○(치안) 유학생의 주생활권인 학교 주변지역은 매우 안전
- 미국은 공권력이 막강하여, 도로경찰만 봐도 긴장됨
- 학교 주변은 상당히 안전한 편, 다만, 근처에서 범죄발생시 학교에서 문자와 메일을 보내줌

○(거주지역) 이스트랜싱(MSU 소재지), 오키모스(가장 선호되는 주거지역), 랜싱(미시간 주도)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됨

- 이스트랜싱 : 인구 5만여명의 대학도시로 MSU를 중심으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안전하나 밤늦게 대학캠퍼스 내를 돌아다니는 것은 다소 위험함
- 오키모스 : 인구 2만여명의 소도시로 학군이 좋고 매우 안전하여 주거지역으로 가장 선호됨. 주택단지의 경우 백인 중산층 및 이주한지 오래된 아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인도, 한국, 중국인 등 1~5년 중장기 체류자가 많이 거주함, 특히 Okemos는 최근 3년간 강도, 상해 등의 범죄가 한 건도 없었으며, 미국 전체에서도 매우 안전한 곳에 속함
- 랜싱 : 미시간주의 주도이나 도시가 다소 쇠락한 느낌이며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치안이 불안함

○(학교 기숙사) 신축된 1855와 좀 더 오래된 University Village가 있음

- 추가로 가구를 구매하거나 유틸리티를 구할 필요가 없어 싱글인 유학생에게 강력 추천
- 한국과는 달리 기숙사 렌트비가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싸지 않으나, 안전하고 학교에 등하교가 수월
- 단, 가족형 기숙사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나 학군이 좋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적합
- 단, 스튜디오가 절대적으로 부족, 2인실이나 4인실 거주가 불가피

o(그외 거주형태) 가족이 있는 경우 Okemos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편이며, 센트럴파크, 클럽메르디앙, 납힐이 대표적인 아파트임

o(자녀교육)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Okemos 지역에 거주

- Okemos 지역의 학제는 초등학교(Cornell, Bennett Woods, Hiawatha 등 3개 학교: 킨더~4학년), 중학교(Kinawa: 5~6학년, Chippewa:7~8학년), 고등학교(Okemos: 9~12학년)로 이루어져 있음

- 대부분의 학교가 평점 8이상을 얻고 있는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Okemos high school은 명문 학교로 손꼽히고 있음

- 백인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학생도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ELL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음

- 등하교시에는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학교와 가까운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라이딩을 해야 함

- Okemos 공립학교 홈페이지: <https://www.okemosk12.net/>

- 초등학교 등록서류 : 거주확인서 (집계약서 등 우편물 2개), 출생증명서,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예방접종확인서, 입학신청서류, 보호자 신분증 (여권, 비자, I-20, 운전면허증), 아이 여권

o(학교_수업관련) MSU MS Finance과정은 재무, 금융학에 대한 기초 및 중급 이상의 이론강의와 case study 강의가 대부분임. Business school의 MBA나 Accounting 전공자들과 함께 강의를 수강하게 되며, Finance과정의 한국인 중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현지인들과 함께 수업을 받음.

-학부 경영, 경제 전공이나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공부하기가 수월한 편임

-문제풀이과제, 팀프로젝트, HBR 관련 분석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도 많아서 학기중에는 수업, 과제, 시험 등 일정이 촘촘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봄학기 와 가을학기는 학기를 2세션으로 진행하게 되어 3과목을 듣는 경우라도, 1.5학점으로 나뉘어 과목이 개설되므로 총 6과목을 수강하게 됨. 단, 1과목의 교수님이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므로 1세션과 2세션의 과목은 연관성이 높음

-출석체크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하지 않지만, 과제제출이나, 수업중 퀴즈 등으로 출석체크를 대신하여 참여도 점수를 산정하게 됨

○(ELL수업)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주2회 영어수업을 개설하고 있음.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진행되는 영어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대학내에 있는 식물원, 미술관, 음악당, 도서관 등을 방문하기도 함. 수년간 한국학생을 지도한 강사분이 많고 있어서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편임

○(기타 생활관련 조언)

-학교수업은 KDI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크게 부담은 안되는 편임. 동일한 과정을 수업받는 학생 중 한국인이 다른 과정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서 교수들도 한국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고, 수업시간 중에도 한국과 관련된 기업 case를 다루기도 함.

-1년의 GMP 과정이기 때문에 입국초반 생활적응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미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 귀국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는 존재함. 그래서, GMP 1년과정은 사전조사가 많이 필요하고, 최대한 동료,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생활적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음(보험, 집, 차 등은 기존에 지냈던 분들로부터 takeover를 받아서 생활하거나, 미국 생활경험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음)

-미시건의 날씨는 겨울이 길어서 4월말까지는 겨울이라고 보는 편이 맞음. 겨울에 외부활동이나 여행을 다니기 적합지 않기 때문에 봄학기에 최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여름이나 가을학기에 수강신청 부담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임

-여름방학동안의 여행도 미리 계획하고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한다거나, 일정은 미리 정하고 오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음. 다만, 여행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할 때, 충분히 많이 알아보고 정할 필요가 있음. 여행을 다녀본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절감이나, 좀 더 효과적인 여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1년은 영어를 배우거나 충분한 공부를 하기에는 분명히 짧은 기간임. 다만, 시간을 어떻게 쓰겠다고 마음을 먹기에 따라 2년과정보다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학교생활에서도 토론수업에 익숙하지 않아서 MSU 과정의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 학생의 참여도는 저조한 편임. 그러나, MSU 과정의 학생들은 학부를 갓 졸업하거나 사회경험이 짧은 학생인 반면에 KDI GMP 과정은 5년~10년 이상의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임. 영어라는 장벽이 존재하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수업시간 동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다면, 본인의 지식수준도 높아질 수 있고, 한국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봄.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대영	학번	
이메일	vocalize121@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ichigan State University / Finance	(국가) 미국
기 간	2017. 12. 29 ~ 2018. 12. 14	[귀국일: 2018년 12월 1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16일

신 청 인 : 정 대 영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가. 기후

미시간의 계절은 한국에 비해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다. 여름엔 한국에 비해 기온과 습도가 낮아 쾌적하지만 햇볕은 꽤 따가운 편입니다.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가 그늘에 들어가면 낮은 습도 덕분에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미시간은 10월말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고 가는 겨울에 접어들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10월초만 해도 낮 최고기온이 섭씨 20도를 넘었는데 불과 2~3주가 지난 10월말 갑자기 낮 최고기온이 섭씨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날씨가 변했습니다. 겨울은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로 매우 길고, 추울 때는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지만, 한국도 2017년 겨울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추웠기 때문에 미시간의 겨울날씨가 한국보다 춥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접한 5대호의 영향으로 눈은 많이 오지만 제설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의 영향으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미시간은 녹지가 많아서 봄에는 소생하는 식물들로, 가을엔 예쁜 단풍으로 무척 아름답지만 짧게 지나갑니다. 미시간은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나. 지리적 위치

Michigan State University(MSU)가 위치한 East Lansing에서 차로 국제공항이 위치한 디트로이트까지 1시간 반, 나이가이라 폭포까지 4~5시간, 미시간호까지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카고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Amtrak이라는 기차가 시카고까지 운행되고 있어서 2~4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편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Okemos에 많은 마트들이 위치해 있지만, 학교아파트 인근에도 5~10분 거리에 Costco, Meijer, Kroger 등 대형마트들이 위치해 있어 식재료 등 구입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치 등 한국 식재료를 판매하는 Lotte Market까지는 차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한국식당도 3군데 있어서 밖에서도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고, Maru Sushi & Grill, AI Fusion Sushi & Grill 등 한국인의 입에 맞는 일식집도 제법 있어서 외식하기에 좋습니다.

저는 MSU를 다니는 동안 미시간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했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시간에서 출산 전후 산부인과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학교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반 유학생보험은 출산 및 관련 산부인과 진료 비용을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에 오셔서 첫 산부인과 진료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진료기록 전체 영문번역본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한글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진료기록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에서 다니시던 산부인과에서 한글이 섞이지 않은 영문 진료기록을 받을 수 없다면 번역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국에서 업체 또는 번역사를 통해 번역하시고 인증을 받아 미국으로 가시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학교 인근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Sparrow Lansing OB/GYN으로 다녔습니다. 미국의 모든 병원에서는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집 인근에 있는 미국 산부인과를 가셔도 언어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스트랜싱 인근 지역에서 출산은 모두 Sparrow Hospital 분만실(Birthing Services and Mother Baby Center)에서 진행되며 이 곳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니시는 산부인과에서 출산 예정일을 분만실에 미리 알려주고, 산부인과에서 양수가 터지거나, 진진통이 오는 등 출산이 임박하면 분만실로 가서 출산하라고 알려줍니다. 출산이 임박해 분만실로 가서서 분만실 접수대에서 접수하시면 접수대와 붙어 있는 예진실(O/B Triage)로 바로 안내되실 겁니다. 병원에 2~3일 정도 입원하게 되는데 기간 내내 간호사가 세심하게 체크/관리하고, 퇴원 시에도 관리에 필요한 물건, 약 등을 챙겨줍니다. (병원에서 그냥 주는 것도 있고, 병원 1층 약국에서 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퇴원 후 응급상황에는 Sparrow Hospital 응급실로 가시면 되고, 진료가 필요하시면 산부인과에 예약하시면 되는데 당일 진료상황에 따라서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출산과 산모 진료/관리, 신생아 진료/관리 비용까지 모두 합해서 20,000달러 정도 청구되었고,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1,500달러 정도를 냈습니다. 이곳은 출생 직후 한번, 한달 후 한번 소아과에 가서 아기 상태를 점검받고, 예방접종은 출생 후 2달이 지나서 합니다. 그리고 4달째 다시 정기검진합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GMP 1년차에 KDIS에서도 재무학과 관련된 과목을 2과목 정도 들었지만, MSU의 Finance 과정은 재무학의 세부분야를 과목별로 나누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공부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에는 봄학기에 Managerial Finance, Introduction to Investments, Financial Derivatives, Entrepreneurial Finance and Venture Capital, 여름학기에는 Advanced Business Finance, 가을학기에는 Mergers and Acquisitions/ Corporate Restructuring and Governance, Debt, Money Instruments and Markets/Fixed Income Instruments를 들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MSU에서 수학하는 1년 동안 총 30학점(10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9학점(3과목)은 KDIS에서 이수한 과목들이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1학점(7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KDIS 학생들은 봄학기에 4과목, 여름학기에 1과목, 가을학기에 2과목을 수강하거나, 봄학기에 3과목, 여름학기에 1과목, 가을학기에 3과목을 수강합니다. 4월까지의 날씨가 추워 여행 등 야외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가을학기에는 귀국준비로 바빠질 수 있으니 봄학기에 4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목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수강신청을 KDIS와 같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를 통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을 원하는 과목을 듣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고 수강신청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이 4~8명 정도로 조를 짜서 수행하는 조별과제를 포함합니다. 조별과제 중에는 발표도 있는데 대부분의 KDIS 학생들은 영어가 편하지 않다 보니 발표를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Finance 과정의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내 다른 대학원의 Finance 과정과 마찬가지로 논문 제출은 졸업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KDIS 학생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우수한 Okemos에 있는 아파트에 사셨지만,

저는 자녀가 없어 시설이 좋고 학교 강의실에서 가까운 학교 아파트(1855 Place Family Housing)에 살았습니다. 학교 아파트는 2016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깨끗하고, 바닥도 카펫이 아닌 마루로 되어 있어 위생적입니다. 월세도 냉난방, 수도, 전기, 인터넷 등을 모두 포함해서 925불로 오케모스의 아파트들보다 저렴하니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아동일 경우에는 학교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의시간 사이에 점심시간이 있으면 KDIS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식당을 이용하거나, 매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사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식권은 201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10장 이상을 구입하면 식권당 7.75불이고, MSU는 캠퍼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식당도 여러 군데에서 운영이 되는데, 강의실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은 걸어서 3분 정도에 있는 The Vista at Shaw입니다. 미국식 식사도 괜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rody Square라는 아주 유명한 학교식당이 있는데 메뉴선택의 폭도 매우 넓고 식권 가격에 비해 음식의 질도 좋은 편이니 가족들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차로 4~5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계절별로 풍경이 다른 나이아가라 폭포의 장관을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Horseshoe Falls를 한눈에 구경하기에는 캐나다쪽 경치가 미국쪽 경치보다는 낫다는 것이 관광객들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야경도 무척 아름답기 때문에 1박을 하신다면 캐나다쪽 호텔을 예약해서 호텔에서 야경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쪽으로 가신다면 American Falls 아래로 내려가서 폭포수를 맞으며 생동감 있게 폭포를 경험해보는 Cave of the Wind라는 코스가 있는데 날씨가 춥지 않다면 이 코스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미시간호까지는 차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미시간호를 따라 아름다운 해변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 미시간호를 따라 여행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미시간호로 가는 길 중간에 Grand Rapid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Frederik Meijer Gardens라는 유명하고 예쁜 정원들이 있으니 이곳에 들러서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대도시를 여행하며 유명한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탄성을 자아내는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구경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에서 현지 영어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MSU의 Finance 과정은 KDIS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있을 만큼 수준이 높고 미국대학 내 Finance 석사과정들 중에서도 17위(TFE Times 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그 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의 여러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거나 쇼핑을 할 수도 있는데 저나 가족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꿈같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GMP 1년차 가을에 KDIS에서 개최한 설명회에 참여한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했고, 비자 인터뷰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는데 영사관의 질문에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출입국시에는 반드시 1-20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출입국 심사 받을 때 제시하셔야 합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동안 살았던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는지 모릅니다. 인근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것, 마트에서 장보는 것,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행 등 야외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홍원철	학번	
이메일	Pitt1230@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SU/ FINANCE	(국가) 미국
기 간	2018.01.01 ~ 2018.12.17	[귀국일: 18년 12월 1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Michigan State은 미국의 강원도로 위로는 동북쪽으로는 캐나다와 인접하며 휴론호, 미시건호, 슈페이어호 세곳의 바다같은 큰 호수들이 있으며 (실제 가보면 파도가 치며 모래사장도 있다) 산림이 풍부하여 공기가 좋고 자연경관이 미려하다. 요 근래 이상기온으로 계절간 온도차가 심하고 특히 Michigan State는 적설량이 많으니 차를 선택할 때 가급적 4륜구동 선택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인 것 같다. 본인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면서 온 관계로 Lansing에서 1시간 떨어진 Ann Arbor에서 거주하였으며 한인숫자는 Lansing 보다는 확실히 적은 편이며 이것이 어쩌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물품은 미국의 e-mart라 할 수 있는 Meijer 나 Best-buy 등을 이용하면 되나, 가급적 급한 물건이 아니면 Amazon이나 E-bay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e-bay의 물건이 Amazon보다 저렴하며 배송은 Amazon이 빠르니 이점 유념해서 구매하도록 하면 된다. Amazon 대학생 할인을 이용하며 Prime 멤버십을 공짜로 몇 달 이용할 수 있으니 초기 물품구매시 유용하게 이용 가능하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본인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였고, KDI 이전에는 경제에 대한 선행 학습이 전무하다. 그래서, KDI 오기전에 CFA LV1을 석달 동안 공부를 하고 왔으며 이것이 MSU Finance 수업을 듣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 이곳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금융기관 (한국은행, 금강원, 수출입은행, 국민연금관리공단) 종사자들이며, 비전공자가 무작정 수강을 한다면 과제와 수업에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다. 공학 전공으로 도시계획 등 타 전공과목 개설이 안되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으나, Finance를 수강하고 세상을 보는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어 이에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학기는 총 세 학기(봄, 여름, 가을)로 구성되며 KDI 학점 Transfer를 하게 되면 21학점 (7과목)만 수강하면 되

므로 학사일정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매학기당 과목수로 4-1-2나 3-2-2, 3-3-3 형태로 수강하는 편이며 가을학기에는 귀국준비 관계로 다들 2과목 수강을 선호한다.

교과목 마다 팀과제/개인과제/조별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간의 finance 지식과 영어 능력이 되면 어렵지 않게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비전 공자일 경우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오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연명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Finance 수업의 경우 natives는 20%도 되지 않고 중국, 대만, 한국인들이 80%를 차지하여 내가 온 곳이 미국인지 헛갈릴 때도 있다. Venture Capital의 경우 미국인들이 80%이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시면 되겠다.

3.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로 한국인들이 머무는 Lansing이 아닌 Ann Arbor에 거주한 관계로 해당 위치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다른 분들의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사항만 언급들이겠다. 미국은 카페트 생활을 해서 이전 생활자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 바닥이 엄청 지저분하다. 마트에서 카페트 청소 도구도 대여 가능하나 가능하면 다이슨 카펫 청소기를 구입해서 매일 청소를 하는 것이 위생상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할 때마다 나오는 먼지에 매번 놀랄 것이다. 집이 북향인 경우 4월까지 앞마당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할 것이므로 아파트 계약전에 반드시 향을 보고 계약하라. 그리고 새로 계약을 해서 집을 들어갈 경우 냉장고, 오븐, 싱크 등 기본적인 집기류는 빌트 인으로 되어 있으나 조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대부분의 조명을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인수인계 받으면 쓰던 가구 등을 싼값에 인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향이 좋지 않거나 차를 같이 구매해야 되는 등의 부대조건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시라.

한국 제품은 한인마트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랜싱보다 앤아버에 위치한 마트가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가격도 조금 저렴하다. 시카고에 영사관 또는 관광으로 한번씩 들릴 때 중부시장이라는 한인마트가 있는데 규모도 크며 물건도 앤아버나 랜싱에 비해 저렴하니 라면 등 보관이 용이한 식료품은 그곳을 통해 구입하면 되겠다.

4.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미국국경을 벗어날 때는 I-20에 서명을 받고 해당지역은 1년동안 유효한 관계로 이곳저곳 미리 서명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입국시에는 F-1 비자와 함께 반드시 I-20를 출입국 심사자에게 보여줘야 하며 수강생 중 캐나다 관광 후 입국시 출입국 심사자가 요청하지 않아 I-20를 보여주지 않았다가 I-20 만료 정보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신경 쓰도록 하자.

한국에서 배송한 이사화물이 늦게 도착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테이크 오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초기정착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이점 유의하셔서 여유달러를 충분히 가지고 오시기 바란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차량배송의 경우 본인이 많이 알아봤으나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제조생산되어 VIN 넘버 시작이 K로 시작하는 국산차만 관세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세, 배송료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미국에서 싸게 구입한 의미가 충분히 퇴색되어진다. 예전에는 한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 제네시스 등이 프로모션을 많이 해서 경제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성면에서는 아우디, 픽업트럭 등이 조금의 금전적 가치가 있으며, 차의 가치면에서는 한국에서 출시 안된 검증된 메이커 차량 등을 가지고 가는 것 외에는 차량배송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 차량배송은 동부보다 서부가 저렴하며, 차량제조 연도에 따라 차량가액에 감가가 적용되어 관련 세금부담이 적어지니 한국에서만 비싼 브랜드(아우디, 랜드로버, 지프 등). 중고차량을 구매해서 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은 금방 간다. 오기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고 7월 8월 방학이 엄청 길고 가을학기 중에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가족들과 많은 곳을 여행하고 경험하면서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일
신청인 : 홍원철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민석	학번	
이메일	ms1981@airport.co.kr		

대학원명	(대학원/전공) Michigan State University(MSU)/ Finance (국가) USA
기 간	2018. 1 ~ 2018. 12 [귀국일: 2018년 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22일

신 청 인 : 김 민 석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가. 기후

이스트 랜싱 및 오케모스 지역은 우리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위도가 북쪽에 있어 겨울에 상당히 추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겨울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온화한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날씨가 상당한 오랜 기간 지속된다. 즉 겨울이 긴 편이다. 보통 10월 말 정도가 되면 추워지기 시작하고 4월까지의 영하를 오가는 날씨가 계속된다. 눈도 자주 오는 편이지만 이 도시에서는 워낙 자주 겪는 일이라 눈이 오면 바로바로 제설작업을 하므로 큰 불편은 없다. 나머지 계절의 날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한국과 달리 습도가 낮다 보니 더운 날씨에도 그늘에 가면 시원해진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어 봄과 가을에는 깨끗한 하늘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시다시피 2018년의 한국은 미세먼지와 40도를 웃도는 여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데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기후 면에선 여기 온 분들 대부분이 만족하며 살았던 거 같다.

나. 지리적 위치

미국에는 워낙 많은 주들과 도시들이 있고 미시간 주는 다른 주들에 비하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선 주이다 보니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미시간 주는 미국 지도를 보면 북쪽 중앙 오대호 주변에 볼록 튀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미시간 주이다. MSU가 위치한 이스트 랜싱은 미시간 주의 중앙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시카고에서 차로 5~6시간 정도 소요되고 미시간 주를 대표하는 도시인 디트로이트에서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랜싱에도 공항이 있지만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였다. MSU가 위치한 이스트 랜싱과 MSU 한국학생이 대부분 거주하는 오케모스와는 차로 10~20분 정도 소요된다.

다. 생활관련 사항

MSU에 재학하는 한국학생들은 일부 학교 내 아파트 (1855 등)에서 생활하긴 하나 대부분 학생들이,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케모스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다. 저는 그 중에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생활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지만 주요 대형마트, 한인마트, 차량 정비소 등이 차로 10분 내의 거리에 있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 미국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한 편이 아니어서 차량이 없다면 많이 불편할 수 있다. 랜싱과 오케모스도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되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학교 등하교시에만 거의 이용하였다. 이 지역은 일부 공사 구간을 제외하고는 차량 혼잡도 거의 없고 주차장도 넓을 뿐만 아니라 차선 양보도 잘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하는 거보다 어렵지 않게 운전할 수 있다. 저도 운전을 잘 하는 편이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편하게 운전했던 거 같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많아 처음에 운전하는데 적응이 잘 안될 수도 있다. 보통 1년을 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차량을 리스하기에는 기간이 짧아 주로 차량을 전년도에 사시던 분께 테이크오버를 받거나 중고차 딜러를 통해 구매하게 된다. 또한 여기 치안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교통 단속은 우리나라에 비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신호나 속도 위반시 단속 차량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벌금도 세게 문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주차장이든 마트 주차장이든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를 안하는 것이 좋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KDIS에서도 Finance 관련 과목을 여러 개 수강하여서 학교 수업을 듣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수강했던 과목들의 대부분 팀 프로젝트, 팀 과제 등 팀으로 하는 것들이 많으며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게 된다. KDIS에서 수강한 Finance 과목에서 좀 더 심화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영어에 다소 서툰 한국 학생들을 위하여 별도로 영어 수업을 개설하여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수강신청은 KDIS와는 다르게 MSU Finance 과정에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이 한국인 학생들이 수강하기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과목들을 선정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대한 부담은 없다. MSU도 KDIS처럼 봄, 여름, 가을 3학기로 나뉘어 있으며, 여름 학기도 KDIS처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이 된다. 다만 KDIS와 약간 다른 점은 봄, 가을 학기에 한 과목 (3학점)을 두 개로 나뉘어 (1.5학점씩) 진행된다는 점인데, 교수와 강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성적만 2번 나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다른 대학원은 KDIS에서 수강한 학점 중 6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에 비해 MSU는 9학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학위 취득을 위한 수강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학생들은 주로 봄학기에 12학점, 여름학기에 3학점 (1세션에만 수강), 가을학기에 6학점을 수강한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대부분의 수업이 팀으로 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으며 때로는 외국인 학생들과 같은 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영어가 조금 서툴더라도 학생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한국 학생들 특히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에는 주로 오케모스의 센트럴파크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또한 KDIS 학생들이 1년 주기로 계속 바뀐다 보니 집도 전년도에 사시던 분께 테이크오버를 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아파트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층수가 높지 않고 (센트럴파크 아파트의 경우 3층) 남향, 북향 관계없이 짓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은 주로 남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은 제가 사는 동안 흐리고 추운 날이 많아서 집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 같다. 또한 리싱오피스에서 임대와 관리 둘 다 담당하는데 직원들 모두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음식, 과일 및 잡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마트는 여러 곳이 있다. 대부분의 음식과 물품들은 주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인 Meijer (차로 5~6분 거리)에서 구입하였다.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Kroger (차로 2~3분 거리) 또는 Aldi (걸어서 10분거리)에서 구입하기도 하였다. 유기농 식품 등 비교적 고급 식품을 판매하는 Whole Food (차로 10분 거리)도 있으나 자주 가지는 않았었다. 마트 내 각종 고기 (소고기 Beef, 돼지고기 Pork)들이 저렴하

여 참 많이 사먹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Walmart (차로 2~3분 거리)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또한 저희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Costco (차로 10~15분 거리)가 생겼는데 주로 삼겹살 (Pork Belly) 구입 및 자동차 주유 시에 많이 이용하였다. (한국에서 가입한 Costco 멤버십도 미국 Costco에서 사용가능하나 자동차 주유 시에는 직원 확인 필요) 또한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인마트가 가까운 곳에 있고 (차로 10분 거리) 요즘엔 간편식도 많이 팔기 때문에 식사 메뉴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는 요리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어플에 나와있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나름대로의 재미는 있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에 Tanger 아울렛 (차로 30분 거리)에 갔었는데 싼 가격에 브랜드 의류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혼자 오다 보니 틈틈이 미국 곳곳을 여행할 기회가 많이 생겼다. 뉴욕, 시카고, LA 등 대도시를 여행한 것도 기억에 남지만 그랜드 캐년, 로키 산맥, 옐로우 스톤 공원, 화이트 샌즈 등 다른 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환경을 접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한 뉴올리언즈 등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현지에서는 유명한 관광지를 여행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한국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듯이 미국도 주마다 다양한 특징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인 성당을 다니면서 현지에 오래 계신 분들과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인 교회도 있다고 하니 종교가 있는 분들은 다니시면 종교 활동 외에 여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다른 해외 석사 학위과정과는 다르게 1년동안 석사 과정이 진행된다 보니 미국 생활에 적응할 때쯤 귀국하게 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MSU는 경영학 특히 금융 분야에 뛰어난 대학으로 1년 동안 기업재무와 투자론, 금융기관론 등 재무론의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수강함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MSU Finance 과정의 한국인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 MSU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수업방식, 즉 강의와 그룹토의, 발표, 개인학습을 포괄하여 진행되어 보다 심도 있게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고, 영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재무금융론 석사과정 학생들은 모든 재무관련 과목을 MBA학생과 함께 수강하기 때문에 외국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업외적으로는 사전에 미리 여행 계획을 잘 세워서 1년이라는 기간에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 사실 MSU에 오기 전 미국에 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1년동안 미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 된 거 같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KDIS에서 개최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비자 신청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하여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인터뷰도 학생비자의 경우에는 까

다르게 묻지 않는다. 하지만 비자신청을 진행하려면 학교에서 I-20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 인도 사람인지라 I-20의 개인 인적 사항에 오타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생년월일이 잘못 나와서 학교에 해당사항 수정 및 재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 I-20의 개인 정보가 여권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 외의 국가 여행시에는 여권과 I-20를 소지하여야 하지만 미국 내 여행시에는 주에서 발급 받은 정식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여행이 가능하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이란 기간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학업이든 그 밖의 활동이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니거나 관련 업무에 경험이 없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 수 있다. 한국인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KDIS에서 관련 과목을 미리 수강하거나 사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에서의 영어 강의 및 토론, 프레젠테이션 준비,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로 어학 능력이 요구되는 바, 사전에 어학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각자 근무하던 곳의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1년동안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하자.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선영	학번	
이메일	seonyeong@gico.or.kr		

대학원명	(Michigan State University / Finance)	(U.S)
기 간	2018.01.03 ~ 2018.12.14	[귀국일: 2018년12월1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17일

신청인 : 이 선 영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Michigan State University는 미국 동부의 Michigan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East Lansing이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다 있으나 동북부라는 위치 때문에 겨울이 길고 춥다. 강수량이 많아 여름에는 비가 자주 내리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 겨울에 눈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 잦은 휴교를 한다. 캐나다와 인접하여 있어,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접근하기 용이하다. 다만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단조롭다. 또한 가까운 곳에 Lansing공항이 있지만, 주요 도시나 미국 이외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디트로이트 공항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 문화생활을 즐길 때에도 디트로이트로 가야된다.

차로 15분 내에 대형마트가 3개(마이어, 카르프, 월마트) 정도 위치하고 있으며 1개의 한인마트, 작은 식료품 마트가 다수 있다.

지하철은 없으며 버스가 다니는데, 평일에는 버스가 자주 다니나 주말에는 거의 없다. 차가 없을 경우 생활이 불편 할 수 있다.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는 편인데 길거리에 가로등이 거의 없어 많이 어둡고 인적이 드무니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학교가 위치한 East Lansing이라는 마을은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전된 형태로 학교를 제외한 대형건물이 없어 조용한 마을이다. 또한 공기가 좋아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하다. Michigan State University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 그 규모가 대단하다. 학교 내에 버스가 운행될 정도로 크다.

교수들 또한 전반적으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 강의실 내 다양한 학습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학교를 졸업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의 현재 교육의 질을 알지는 못하나 과거 나의 학습 경험에 비교해 봤을 때, 학습 자재나 강의실의 질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Finance의 경우는 나의 학부 시절의 학습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일부 과목은 학부 수준의 난이도였으나, 일부 과목은 상당히 심화된 과정이었다. 또한 사례 중심의 수업진행 및 조별 활동과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을 꾀하는 등의 수업방식은 미국 대부분 수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1년 동안 총 21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3학기(봄, 여름, 가을)에 걸쳐 나눠 듣게된다. 통상적으로 봄학기(9학점-3과목), 여름학기(3학점-1과목), 가을학기(9학점-3과목)의 형태로 수강한다.

GMP과정을 통해 수강하게 되는 과목은 거의 정해져 있으며, 일괄적으로 MSU

에 상주하고 계시는 한국인 교수님이 수강신청을 해 주신다. 본인이 원한다면 다른 과목을 수강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강의를 수강한다. 교수님 추천 강의의 학생 구성은 GMP 학생 10-15명, MSU 직접 오는 한국학생 5명 내외, 중국인 10명 내외, 미국인 등 10-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이 구성원 들은 최소 한 학기 이상은 변하지 않는다.

상기 학점은 각 학기에 들어야 될 최소한의 학점으로 상기 학점보다 미달하여 수강할 경우 비자가 취소 될 수 있다. 다만, 교수의 확인 사인을 받아 비자 발급센터(OISS)에 승인을 받으면 적은 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을학기 귀국준비 등으로 일부 학생들은 봄(4과목), 여름(1과목), 가을(2과목)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MSU Finance 과정은 논문이 없으며, 수업은 과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과목별로 2~3번의 시험, 다수의 퀴즈, 주 단위 assignments, 조 발표 1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기 학기가 가을에 시작되기 때문에, KDI를 마치고 겨울에 기숙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숙사가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나 또한 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뒤 늦게 학교 인근 아파트를 계약하여 생활하였다. Michigan에 East Lansing이라는 동네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했는데, 학교와의 거리는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학교 및 편의시설(마트, 세탁소, 식당 등)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는 편하다. 다만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밤에 소음이 많아 가족단위로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018년 기준 월 rent 비용은 본인 거주 unit(10년 정도 된 건물로 추정됨)을 기준으로 1 bed room, 1 living room, 1 bath room이 860달러 수준이다.

음식은 주식은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등인데, 한국사람들에게 주식으로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근 차로 10분 내외의 거리에 한인 마트와 한인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어 한인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 한식위주의 식사를 많이 한다.

점심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했는데, 각 기숙사 별로 대부분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대략 5개 정도의 식당이 있고 식당별로 다양한 메뉴를 운영한다. 학생 식당은 뷔페식이며, 1끼당 10.5달러(티켓으로 다량 구매시 1끼당 7.75달러)이며 아시안 푸드는 최소 1가지 이상 포함되어 운영된다. 학생증을 통해 식권을 충전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방학을 활용하여 미국 이외의 국가들을 많이 여행 했는데, 캐나다와 남미는 거리가 가깝고 비행기 비용이 한국에 비해 저렴하여 여행을 다녀오는 것을 추천한다. 여름방학이 특히 길어서 계획을 잘 세워 알차게 활용하면 즐거운 해외 교육생활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골프 요금이 저렴하고 골프장이 주변에 많아 많은 한국

분들이 야외활동으로 골프를 했다. 주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활동량이 많이 떨어지고, 기름진 음식이 많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골프 등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Finance 담당 학과장과 학생들과의 오찬 자리가 1년에 2-3회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국내 1년, 해외 1년 총 1+1 이라는 GMP 과정을 하는 동안 해외에서의 1년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특히, 우리회사는 1년 국내에서의 과정이 평일에는 회사생활을 하고 주말에 KDI 학교생활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의 1년이 소중한 시간이었다. 국내에서의 힘든 시간을 보상해 줄 정도로 즐거웠던 1년이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더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학교에 지원 후 합격을 하면 우편을 통해 합격증과 함께 비자발급을 위한 i-20 서류를 보내준다. 해당 서류와 기타 부속서류를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비자 발급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주로 물어보는 것은 미국에서의 체류기간과 학비 및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는데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다.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할 때 미화 10,000달러 초과 소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초과하여 입국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신고한다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초과 소지 시 신고를 추천한다. 미신고 시 가산금이 있다. 또한 출입국 사무소 직원에 따라 다르나, i-20와 비국비자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전공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약간의 대비는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I-20 하단에 본인서명란이 있는데 공란으로 두지 말고 작성 후 가져가야 한다. 미국에서 중간중간 미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이때에도 I-20를 잊지 말고 꼭 챙겨가야 한다. 이 서류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방학기간 중에는 이 서류를 제시하면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으나 학기 중에 여행을 가게 되면 자세히 여러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 당황하지 말고 성심 성의껏 대답을 하면 된다. 한국에 돌아올 때 보통 처음 미국에 갈때보다 짐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1인당 CHECKED BAGS은 2개까지 허용되며 기내용 캐리어 1개가 허용된다. 델타항공을 이용했는데 개당 23KG 초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을 하니 무게가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짐을 싸야 된다. 사전에 미국에서 짐을 미리 보낼 수 있는데, 미리 부친 짐이 나의 귀국일 보다 먼저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이삿짐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짐을 부쳐야 된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교육과정을 도전하기 전 영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만 하는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대학생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등 여러가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웠었다. 하지만 이 GMP과정이 여러 해 동안 운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왔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도 점차 진화되어 가는 것 같다. 기존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생활 이후에 오랜만에 캠퍼스로 돌아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또한 선진국의 교육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즐거운 일이다. 공부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 도 있는 나이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지식 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 배우는 문화적 지식 또한, 회사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인생에 한번도 경험해 보기 힘든 좋은 기회에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기를 추천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혜림	학번	
이메일	demian3200@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Michigan State University / Finance (국가) 미국		
기 간	2018.1.1~2018.12.31	[귀국일: 2018년 12월 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월 3 일

신 청 인 : 이 혜 림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미시간주는 미국 북동부에 위치, 캐나다 국경과 오대호에 인접하여 겨울에 춥고 여름에 선선한 날씨임. 보통 5~9월은 선선하고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이며, 여름은 건조한 편이고 크게 덥지 않음. 겨울에는 통상 영하 2~10도 내외 기온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편임.

○ 취학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 Okemos 지역에 거주하며, 자녀가 없거나 아주 어린 경우, 혼자 출국한 경우 등 일부는 1855 학교 기숙사 및 MSU 근방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임.

- Okemos 지역의 학제는 초등학교(Cornell, Bennett Woods, Hiawatha 등 3개 학교: 킨더~4학년), 중학교(Kinawa: 5~6학년, Chippewa: 7~8학년), 고등학교(Okemos: 9~12학년)로 이루어져 있음

- 대부분의 학교가 평점 8이상을 얻고 있는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Okemos high school은 명문 학교로 손꼽히고 있음

- 백인 학생 비율이 높으며, 인도, 중국, 한국 등 아시아 학생도 적지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각 학교에서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ELL)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음

- 등하교시에는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학교와 가까운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라이딩을 해야 함(Bus #15, 8:15am경 센트럴파크 아파트 Tennis Courts 및 타운하우스 앞 2군데 정차)

- Okemos 공립학교 홈페이지: <https://www.okemosk12.net/>

- 자녀 입학시 등록서류 : 거주확인서 (집계약서, 우편물 2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입학신청서류, 보호자 신분증 (여권, 비자, I-20, 운전면허증 중 택), 자녀 여권

- (방학) Summer Vacation(6월중순 ~ 8월하순), Winter Vacation(크리스마스 ~ 신년 초), Spring Break(3월 20일경부터 약 1주일)로, 12월말 도착시 통상 1월 첫째 월요일에 학교 등록 및 당일 부터 학교를 보내게 됨

○ 미국은 이동을 위해 차량이 대부분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대학원 왕복은 통상 버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현지에 도착하여 정식 중고자동차 딜러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인은 도착 직후부터 차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인을 통해 take over 받음.

- 자동차 매매시 기존 소유주로부터 차량 title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차량 title에 매매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매매가 기준으로 6%의 차량 취득세를 차량 소유권 등록시 납부함
 - o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 들을 경우 자차 이동시 MSU 경영대 건너편 주차장 (Ramp#1, Shaw lane) 이용, 주차료 (30분당 \$0.85)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o 미시간 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은 Michigan주, East Lansing에 위치한 공립학교로, 미시간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Eli Broad school of Management)의 재무 금융론 석사학위 (Master of Science in Finance) 최신 재무관리 이론과 실제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재무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년 기간 동안 봄/여름/가을학기 수업을 통해 기업 재무와 투자이론, M&A 등 관련 다양한 이론과 적용 사례를 배울 수 있음.

o 전반적인 이론과 케이스 설명을 교수님께 듣는 강의와 교수님, 학생과 수업시간 내내 토론과 의견을 내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강의들이 혼재되어 있음. 기본적인 경제학, 재무학 관련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무리없이 강의를 이해하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팀으로 하는 과제가 많은 편이고, 프리젠테이션도 발표 준비 및 예상질문 답변에 상당 시간 준비를 해야 하였음.

- 석사 과정 한국 유학생은 KDI, KAIST와 연계한 1+1 과정 학생이 대부분이며, 보통 수업을 같이 듣게 되는 Finance, MBA, Accounting 학생들 중 백인 현지학생들이 대다수이며, 한국과 중국 유학생은 비중이 높지 않음
- 원활하게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Finance에 대한 선행 학습으로 KDI 내 개설된 경제학(미시, 거시), 통계학(QM), 재무관리, 투자, International(Multi-national) Finance 관련 과목을 미리 듣고 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o 1년간 필수 이수학점은 30학점으로 30학점 중 18학점은 무조건 Finance 전공 과목. 나머지는 타 단과대 수업 수강도 가능(경제, 회계 등)
- 30학점 이외에 한국학생들을 위한 영어과정 강사를 고용하여 별도 영어강좌가 개설되어 있음(3학점, 졸업학점 미포함, 필수)
- o KDI 1+1 과정으로 진학시, MSU 파이낸스 과정은 2년차 봄학기(1월)부터 시작

되므로 전형은 통상 전년도 가을부터 진행

- KDI 학교 측에서 일괄하여 전형을 진행하므로 개별 학생이 MSU에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아도 됨

- 1년 등록금은 \$39,600 (단, 등록/교재비, 보험료 불포함)이며, 고정 등록금이라 수강 과목수에 상관없이 등록금 동일 (희망 시, 30학점 이상 수업 수강 가능), 연 3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함

- o 수업의 경우 필수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고(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 수강신청도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교수님 주도 하에 이루어짐

- 육아 때문에 아이들 하교시간(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4시) 전에 끝나는 수업을 선호하였는데, 봄/여름학기에는 모두 오전9시-오후 4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나 가을학기의 경우 필수과목이 늦게 시작하여 저녁 6시경 종료되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o East Lansing(MSU 인근) 및 Okemos(아파트 인근)는 매우 안전하며, 중산층이 많고 주민들 소득 및 의식 수준이 높은 편임.

- 특히 Okemos는 최근 3년간 강도, 상해 등의 범죄가 한 건도 없었으며, 미국 전체에서도 매우 안전한 곳에 속함

- o 인구는 약 5만명 수준의 소도시로 주로 MSU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교수나 교직원 등이 많이 거주함.

- 대도시에 비해 주택임대료 등 물가는 저렴한 편이며, 아파트 렌트비가 900달러~1,200달러 수준으로 미국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

- 취학연령의 아이가 있는 가족의 경우 대부분 오키모스 지역을 선호하며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는 센트럴파크메르디안메도우, 클럽메르디안, 납힐 정도임. 대부분 3층짜리 건물로 1~3 bed 구조이며, 각 아파트는 leasing office 에 의해 모든 관리가 이루어지며, 단지내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음

- o 미시간 주는 대체로 물가수준이 저렴한 편이며, 특히 오케모스 지역은 월마트, 크로거, 마이어, 타겟, 코스트코 등 다양한 마트와 메이시스 등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 생활하는 데 편리

- 고기, 야채, 유제품(우유, 치즈 등), 공산품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등은 한

국보다 저렴한 편이나, 인건비가 드는 서비스(수선, 세탁, 미용, 이사, 택시 등)는 모두 한국보다 비싼 편

- 한국에서 가져올 것을 권유받은 것들도 마트에서 거의 구매 가능하므로 이삿짐에 가져올 필요 없음. 김치, 만두 등 한국 음식과 식재료는 Lotte Mart를 빈번하게 이용하게 되며, 한국 대비 많이 비싸지는 않은 편임
- 근처 도시인 Troy(H Mart), 시카고(H Mart)에도 대형 한인 마트가 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의료보험) 학교보험의 경우 연간 2000불이 넘으며,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게 되며, 병원 이용과 비용 청구가 용이한 편, 출산 등이 예정된 경우 커버리지가 넓으므로 추천

- 단,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상 기준을 만족한다면 외부 의료보험 가입 후 waiver 신청을 해도 됨
-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학교보험 대신 CareMed 같은 글로벌 보험과 한화보험 결합상품을 가입하여 1000불 내외로 저렴하게 가입(KDI 출국 지원설명회 때 연관되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상의), 동반가족도 한화손해보험 가입하여 출국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KDI에서 영어로 수업을 1년간 듣고 생활하였지만, MSU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대부분 파이낸스 심화과정을 영어강의로 듣는다는 것이 도전적이었음. 일반적인 강의 형식의 수업보다 토론형, 발표형 수업비중이 높은 편이며, 이로 인해 프리젠테이션 및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었음.

- 팀으로 하는 과제비중이 높고, 외국인들과 섞여 팀 구성을 하게되어 그 과정에서 현지 학생들의 스타일을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다른 패턴의 생각들도 접할 수 있었음
- 특히 GMP학생들은 일정 기간 업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 학습을 통해 좀 더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함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통상 학생 본인은 F-1비자, 가족은 F-2비자를 신청 발급받음. (J비자는 직무관련 출국시 통상 발급)

- KDI 경우 해외파견 전 설명회를 통해 비자대행, 보험, 해외이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 보험업체에서 대행하여 보험 가입을 하고나면, 비자신청 부분은 무보수로 대행해 주었음

○(출입국) 입국 경로는 디트로이트 공항, 시카고 공항, 랜싱 공항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트로이트 공항을 많이 이용함. 특히 겨울에 눈이 오거나 기상여건 악화시 랜싱공항은 연착, 결항이 빈번하므로 유의 필요.

- 인천공항 in - Detroit 공항 out (13시간) - Detroit 공항에서 MichiganFlyer 버스 타고 East Lansing 하차- 택시(Uber, Lyft앱 이용) 타고 집으로 이동

- 미시간 플라이어 버스(시외버스 성격, 홈페이지(<http://www.michiganflyer.com>))에서 예약가능)도 1~2시간마다 자주 있으며, 차량 내 와이파이가 되고 편리함 (이스트랜싱까지 1시간 40분 가량 소요)

○(세금) 미시간 주는 6%의 소비세, 상대적으로 낮은편

- 제품구매시 표시가격이 세전가격이라 세금이 가격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측면

- 레스토랑 등 이용시 팁은 15-20% 별도

○(전화, 인터넷) 핸드폰의 경우 일반적으로 AT&T 선불 유심칩(월45달러)에 통화, 문자 무료 및 Data 6Giga이며 미사용분은 다음달로 이월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 인터넷은 정착시 우선적으로 할 일 중의 하나로, 아파트에 따라서는 하나의 회사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회사 선택권 없음)

- Central park 아파트의 경우 AT&T만 사용 가능하였고, 설치 및 해지 관련 한국인 상담도 가능했음 (콜센터 번호 : 8552161015)

○(전기) 110V를 사용하며, Consumer energy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전기신청을 해야 함. 아파트 계약서 및 신분증(여권) 지참 필요

- 110v 플러그 : takeover 받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이 필수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 KDI 생활도 기억에 남겠지만, 특히 미국에서의 1년은 공부와 여행,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함. 출국 준비시 힘든 부분들도 미국 도착후 새로운 학교생활에서 모두 보상(?^^) 될 것이라 생각됨. Finance를 충실히 배우기 위해 학기 중에는 여러 과제 및 팀 작업에 집중하되, break 기간을 활용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현지 친구 및 가족과의 교류를 자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림.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